韓國心理學會誌:相談과 心理治療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94, *Vol. 6*, No.1, 99-118

초기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적 상보성과 작업동맹과의 관계

김 지 은 이 장 호
(서울대 심리학과)

본 연구는 초기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 특징을 상보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작업동맹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서 대학 상담소에 자발적으로 찾아온 내담자들의 상담 사례 중에서 10사례가 선정되어 1회기부터 3회기까지 총 30회기의 초기 상담 사례들이 분석되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개별적 언어 반응들은 Benjamin(1981)의 사회행동 구조분석(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모형에 따라 부호화되었다. 각 언어 반응 유목의 기본율과 작업동맹 측정치와의 상관이 구해졌다. 또한 연계분석을 통하여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보적 언어 반응 및 비상보적인 언어 반응 유목 연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kappa 값이 구해졌고, 이 값과 작업동맹 측정치와의 상관이 계산되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상담자 반응의 기본율과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상담자의 통제 반응의 기본율은 작업동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반면, 우호적인 반응과 적대적인 반응의 기본율은 작업동맹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내담자 반응의 기본율의 경우에는 매우 자율적인 행동은 작업동맹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순응하는 행동은 정적인 상관을 보임으로써 내담자가 통제를 할 경우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해 준다. 연계분석 결과를 통하여 상담자의 통제 행동의 단순 발생 빈도만으로는 작업동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그것이 내담자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에 따라 작업동맹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즉 상담자의 통제 행동에 상보적인 반응은 작업동맹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비상보적인 상호작용은 작업동맹과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우호적 측면에서의 상보적 상호작용은 작업동맹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많은 상담자들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가 성공적인 상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들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Gelso & Carter, 1985; Horvath & Greenberg, 1986, 1989; Strupp & Hadley, 1979). 상담 관계의 질을 의미하는 개념들 중에서 작업동맹은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신분석에 비롯된 작업동맹의 개념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의식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공유된 목표를 향해 서로 협조해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Bordin, 1979).

이제까지 작업동맹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작업동맹이 상담 성과의 한 예언 변인임을 증명하려는 연

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상담의 특정 시점에서 측정된 작업동맹의 정도가 상담 종결시 측정된 내담자의 변화와 어느 정도의 상관을 갖는가를 검토하는 전략을 취하였다(예를 들면, Hartley & Strupp, 1983; Horvath & Greenberg, 1986, 1989; Luborsky, Crits-Christoph, & Alexander, 1983). 이런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작업동맹은 상담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작업동맹의 초기 측정치들이 상담성과를 예언하는 좋은 지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작업동맹에 관한 두번째 유형의 연구들은 작업동맹이 성과의 좋은 예언변인이라는 첫번째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동맹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Horvath와 Greenberg(1992)의 요약된 논문에서 보면, 작업동맹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내담자 요인들로는 사회적 관계의 질(Moras & Strupp, 1982), 가족관계(Kokotovic & Tracey, 1990),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들의 지표들(Luborsky 등, 1983), 내담자의 동기(Marmar et al., 1989), 심리적 상태(Ryan & Cicchetti, 1985), 대상관계의 질(Piper et al., 1991), 증상의 심각성(Luborsky et al., 1989) 등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내담자들은 강한 작업동맹을 발달시키기 힘들다. 또 성공에 대한 희망이 적고(Ryan & Cicchetti, 1985), 대상관계가 빈약하거나 방어적인 내담자들도 흔히 상담에서 동맹을 잘 맺지 못한다. 그렇지만 증상의 심각성은 좋은 작업동맹을 발달시키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Luborsky et al., 1983).

작업동맹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특성이나 치료적 개입에 관한 연구들은 내담자 특성들에 관한 연구들에 비해서 매우 적은 편이다. 방기연(1991)은 작업동맹의 형성을 촉진하는 상담자의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자 언어 반응의 유형과 작업동맹 간의 관계를 관련시켜 분석한 결과, 상담자의 개방적 질문, 구조화 및 정보 제공이 작업동맹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단순한 격려 반응은 부적인 상관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성과를 예언하는데 있어서 작업동맹과 상담자 개입 유형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작업동맹 형성에서 내담자 특성이나 상담자 특성, 어느 한쪽의 반응 형태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관계인 작업동맹의 형성을 보는 데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상담과정 연구의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볼 때 상담과정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교류의 연속 과정으로 볼 수 있다(Anchin & Kiesler, 1982; Strong & Claiborn, 1982; Watzlawick & Weakland, 1977). 그리고 다양한 이자(dyads)관계 장면에서 한 개인의 특정한 대인행동은 우연 수준보다 높은 확률로 다른 개인의 특정한 대인행동을 유발한다(Heller, Myers, & Kline, 1963; Raush, Dittmann, & Taylor, 1959; Raush, 1965). Kiesler(1983)에 따르면, 각 개인의 행동은 무선적인 것도 아니며 또한 가능한 범위의 반응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것도 아니다. 대신에 각 개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타인들의 반응은 비교적 좁은 영역의 대인적 반응들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Leary(1957)와 Carson(1969), 그리고 Kiesler(1982, 1983) 등은 이와 같은 유형의 상호작용을 상보적(complementary) 상호작용이라 일컬었다.

상담과정에서의 상보성을 개념화하는 방식

은 연구방법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상보성을 지배-복종의 통제 차원으로만 파악하는 방법인데(예를 들어, Lichtenberg & Barke, 1981; Tracey & Ray, 1984), 여기서 상보적 상호작용은 참여자간의 지위(status)가 동등하지 않은 것으로 특징지워지며, 참여자 어느 한쪽이 상호작용 중 다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Watzlawick, Beavin, & Jackson, 1967). 즉 각자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상보적이 되도록 상이한 유형의 행동을 교환한다.

상보성을 통제 차원에서만 보는 방법에서는 통제가 영향(influence), 힘(power), 지배성(dominance) 등과 같은 용어들과 뒤섞여 사용되고 있으며, 상담관계에서 복잡하게 발생하는 통제 측면의 특정 부분만을 부각시키므로 통제 차원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인 행동에 대한 2-요인 모델들이 제안해온 것처럼(Benjamin, 1979; Carson, 1969; Leary, 1957; Wiggins, 1979, 1982; Lorr & McNair, 1965) 통제 차원과 더불어 친애(affiliation) 차원이 대인 행동의 두가지 기본 요인을 구성하고 있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작용에서 정서적 측면이 상담성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온 여러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Gomes-Schwartz, 1978; Strupp & Hadley, 1979), 상담에서 논의되는 화제를 누가 통제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상담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복잡한 대인적 상호작용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보성을 연구하는 두번째 방법은 지배-복종의 통제 차원을 수직축으로 하고 우호-적대의 친애 차원을 수평축으로 결합시켜 두가지 차원에서 상보성을 보는 방법이다. 2요인 모델 하에서 상보적 교류는 통제 차원에서는 교호성(reciprocity)을 나타내고 친애 차원에서는 일치성(correspondence)을 나타내는 대인간 교류 패턴을 말한다. 즉 우호적이고 지배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복종적인 반응이, 적대적이고 지배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복종적인 반응이 뒤따르는 것이 상보적 상호작용으로 규정된다. 여기에서 상보적이란 말은 위와 같은 행동 연계가 좋거나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양한 이자관계 장면에서 이러한 패턴의 상호작용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관찰에 의거한 용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상담에서 차지하는 상보적 교류의 가치는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연구 대상인 것이다(조성호, 1992).

상보성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받아온 주제는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의 통제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Haley(1963)는 성공적인 상담은 상담자나 내담자의 개별 특성보다는 상호작용 패턴과 관련이 있으며,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즉 상담자가 관계를 통제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내담자가 통제를 할 경우 그는 자신의 문제 행동을 통해 왜곡된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증상을 지속시키려 하므로 상담은 아무 성과가 없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가설을 검증하려 한 연구들(Lichtenberg & Barke, 1981; Tracey & Ray, 1984; Reandeau & Wampold, 1991)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것은 Haley의 가설이 틀렸다는 것보다는 측정도구상의 문제로 보인다. 이들의 연구에 사용된 관계통제 부호화 체계

(Relational Control Coding System), 화제주도/화제추종(Topic Initiation/Topic Following), 그리고 Penman의 유목 체계(Penman, 1980)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행동을 분석하는데 있어 유목을 상담자용과 내담자용으로 달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의 행동에 동일한 지배-순종 유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의 부호화 체계를 살펴보면 지배에 관련된 유목들은 화제 주도, 질문, 지지, 조언 등 주로 상담자에게서 발견되는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종에 관련된 유목들은 화제 추종, 대답, 동의, 협조 등 주로 내담자에게서 발견되는 행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호화 체계를 사용할 경우 상담 이자관계에서 어느 한 쪽에 일방적인 통제를 부여하는 편파(bias)를 초래하게 된다(Reaundeau & Wampold, 1991).

통제에 대한 또 다른 입장으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할 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통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Gilbert, 1980; Rogers, 1951). 이들은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통찰을 하도록 돕고 내담자의 자율적 결정을 허용해야 내담자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상담자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등 내담자를 자유롭게 하는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담자의 상담기법은 지배의 유형으로도 순종의 유형으로도 분류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태도임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위에서 설명한 유목체계들은 통제를 지배-순종의 단일 차원에서 설명함으로써 상담장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통제양식을 포착할 수 없다. 따라서 상담의 성과와 관련되는 상담자-내담자의 통제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담과정에서 드러나는 통제 행동의 복잡한 측면을 포괄하는 보다 객관적인 부호화 체계가 필요하다.

Benjamin(1974)은 상호작용 모형 중 하나인 사회행동 구조분석(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에서 통제와 친애를 통합하는 방법을 적용하면서 통제를 이차원적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는 화자의 촛점이 상대방에 있는지 자기에게 있는지에 따라 통제의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였다. 즉 화자의 촛점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통제는 자율성의 허용(giving autonomy)과 지배(dominate)라는 하위차원으로, 촛점이 자기에게 있는 경우는 자율적임(be separate)과 순종(submit)이라는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통제에 관한 연구들이 지배와 순종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면서도 지배에 대해 순종으로 반응하는 교류를 서로 들어맞는 상보적 교류로 정의한데 비해, Benjamin은 '상반(opposite)' 되는 행동과 '상보적(complementary)' 인 행동을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지배에 상반되는 행동은 자율의 허용이며, 순종은 지배에 상보적 개념이다. 즉 상담 장면에서의 통제는 단순한 지배와 순종이 아니라 행위의 촛점에 따라 최대의 상호의존(maximal interdependence; 지배-순종)과 최대의 독립(maximal independence; 자율의 허용-자율적임)이라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러한 통제의 개념을 상담과정에 적용할 경우, 상담자의 통제 행동에 순종하는 내담자의 행동뿐 아니라 통제에 대해 자율적인 반응을 함으로써 상담과정에서 통제를 행사하는 내담자의 행동을 포착해 낼 수 있다. 또한 행위의 촛점에 따라 통제의 의미를 다르게 부여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통제 행동을 분석할 수 있게 되며, 다른 연구 방법이 지

배와 순종이라는 단일차원으로만 통제양식을 구분하여 통제의 정확한 속성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enjamin의 사회행동 구조분석(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SASB)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Henry, Schacht 및 Strupp(1986)은 최종 성과에 따라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수집하여 상담초기의 대인행동 양식과 상담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사회행동 구조분석(SASB)에 따라 상담자-내담자 대인행동을 부호화하였다. 그 결과, 성공 사례에서는 실패 사례에 비해 상담자의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행동과 '긍정해주고 이해해주는' 행동이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경시하고 꾸짖는' 상담자의 행동은 의미있게 낮은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담자의 '털어놓고 표현하는' 행동은 성공 사례에서 더 자주 나타난 반면, '담을 쌓고 피함'과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동은 실패 사례에서 의미있게 발생하였다. 그리고 정문경(1993)은 연계분석(sequential analysis)을 하여 상담자의 통제 행동에 주장하고 독립적인 반응을 하는 내담자의 행동은 상담의 부정적인 성과와 관련이 있으며, 상담자와 적대적인 감정의 교류 또한 상담 성과와 부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들은 Benjamin의 사회행동 구조분석으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의미있게 변별한 데에 의의가 있으나 대부분의 상담 과정이 매회기마다 동일한 성과를 보이지 않을 뿐더러 종결시에 나타난 유의미한 치료적 효과는 지나가버린 사건들과 치료외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이므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상담 효과를 알아보려면 좀더 즉각적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제한점들을 보완하여 좀더 객관적인 부호화 체계라고 할 수 있는 Benjamin의 사회행동 구조분석 모형에 따라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상담이 끝난 직후 작업동맹을 측정하여 그 둘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1. 참여자

(1) 상담자

서울대학교와 한국 외국어 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10명의 상담자들(남 6, 여 4)로서 상담 경력은 1-11년(1년:2, 3-4년:7, 11년:1) 사이였다. 이들이 사용한 상담 접근 방식은 절충식 상담이었다.

(2) 내담자

1994년 3월부터 4월까지 상담소를 자발적으로 찾아와 상담을 신청한 내담자들 중 성격검사(MMPI) 결과로 판단했을 때 정신병리적 증후를 보이지 않는 내담자들 10명(남 7, 여 3)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주요 문제는 대인관계 문제와 성격 문제이다.

2. 도 구

(1) 작업동맹 질문지(Working Alliance Inventory; WAI)

이 질문지는 작업동맹에 관한 Bordin(1979)의 이론에 따라 Horvath와 Greenberg(1986, 1989)가 제작한 36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이 질문지는 목표합의(goal agreement), 과

제동의(task agreement), 유대(bond)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은 5점 척도(전혀 아니다-그렇다)의 12문항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인분석 결과 이 질문지는 세 가지 고유의 일차적 요인들(과제, 목표, 유대) 및 이차적 요인인 일반 작업동맹 요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racey & Kokotovic, 1989). 본 연구에서는 방기연(1991)이 국내에서 최초로 번안한 것을 김선경(1992)이 재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17사례에서 측정된 내담자용 WAI의 신뢰도 계수(stratified coefficient)는 .76이었고 33사례에서 측정된 상담자용 WAI의 신뢰도 계수(stratified coefficient)는 .77이었다(김선경, 1992).

(2) 사회행동 구조분석(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SASB)

사회행동 구조분석은 그림1과 같이 두개의 다이아몬드형의 평면(surfa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의 평면은 상대방에게 촛점을 두는(Focus on Other) 행동들로 구성되며 두번째의 평면은 자기에게 촛점을 두는(Focus on Self)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모형은 8분원(O1-O8, S1-S8)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분원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행동을 부호화하는 유목으로 사용된다. 그림에서 알파벳 O와 S는 행위의 촛점이 상대방에 대한 것인지(O) 또는 촛점이 자기에 대한 것인지(S)를 의미한다. 또 1-8까지의 수는 8분원상의 한 지점에 속하는 것을 나타낸다. 두개의 평면에 위치한 행동들은 서로 상보적인 행동들을 묘사한다. 즉 다른 평면에 속해 있으나 분원이 같을 경우, 예를 들어 O1과 S1, O4와 S4 등은 서로 상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형의 수평축은 행위의 친애(affiliation)의 정도를 반영하는데 우측으로 갈수록 더 우호적임을, 좌측으로 갈수록 더 적대적임을 나타낸다. 또 모형의 수직축은 행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정도를 반영한다. 각 모형의 수직축은 위로 갈수록 더 독립(independence)적임을, 아래로 갈수록 더 상호의존(interdependence)함을 나타낸다.

(3) 회기 평가 질문지 (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 SEQ)

Stiles와 Snow(1980)에 의해 개발된 회기성과 측정도구로서 상담시간 동안의 깊이(depth)와 순조로움(smoothness)을 평가한다. 각 하위척도는 5쌍의 양극 형용사들로 된 7점 척도이다. 각 하위척도당 35점이 최고 점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경희(1986)와 최윤미(1988)가 번안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오경희(1986)가 보고한 SEQ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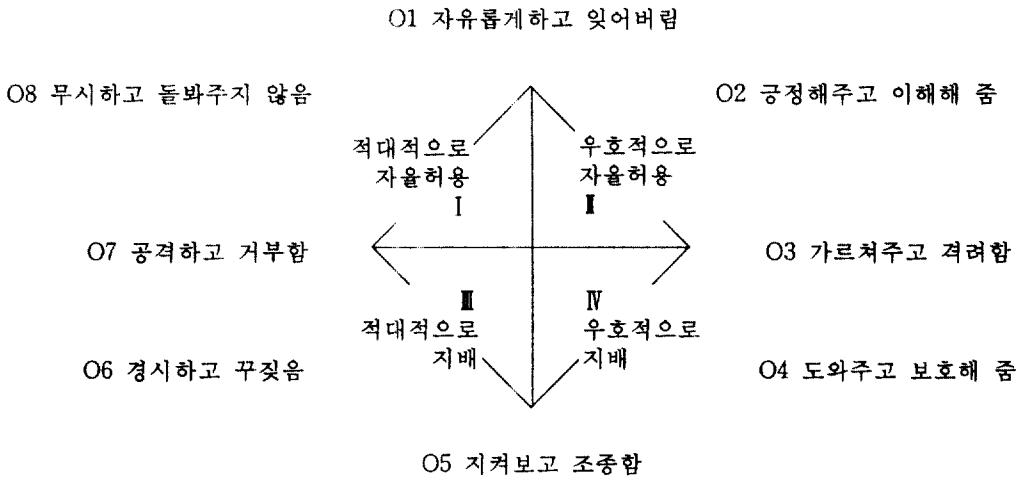
(4) 상담자 특성 질문지

상담자의 경력과 주 치료 입장(approach) 및 본 연구 사례를 다룬 치료적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금명자(1994)가 만든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3. 절차

상담을 신청한 내담자와 담당 상담자들에게 자료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1회부터 3회까지의 상담을 녹음하고 매 상담이 끝난 후 상담자, 내담자 각각 작업동맹 질문지(WAI)를 평정하게 하였다. 3회 상담이 끝난 후 상담자

촛점: 상대방 (Focus on Other)



촛점: 자기(Focus on 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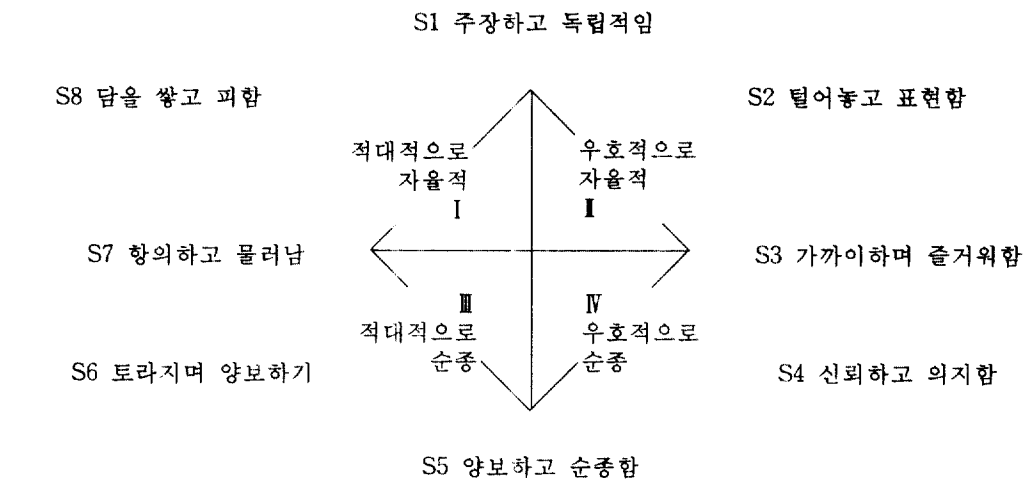


그림 1. 사회행동 구조분석 모형

는 상담자 특성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녹음된 테잎은 축어록을 작성하여 훈련된 평정자들이 사회행동 구조분석에 따라 부호화하였다.

4명의 평정자들(석사 학위 소지자 1명, 석사 과정 3명)은 예비자료를 가지고 연구자와 함께 사전훈련과 토론을 거친 후에, 평정에 논란이 있는 반응들에 대해서는 코딩 메뉴얼에 의거해서 합의된 평정기준을 재정의한 후 평정하였다. 평정자들간 일치율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른 후 각 축어록을 2명이 평정하여 일치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평정이 서로 일치하지 못한 반응들은 서로 협의하여 합의된 반응을 평정자료로 사용하였다. 평정자간 평균 평정 일치는(Cohen's kappa) .73(범위는 .65 - .90)이었다.

4. 분석

1994년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수집된 16사례 중 1회기부터 3회기까지 녹음과 작업동맹 질문지가 모두 완성된 10사례(30회기)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각 언어 반응 유목의 기본율(base rate)을 조사하였다. 둘째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계분석(sequenti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계분석은 사상의 연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분석 방법을 이르는 용어이다(Lichtenberg & Heck, 1983). 본 연구에서는 바로 선행하는 반응이 곧이어 뒤따라 일어나는 반응의 출현 확률을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지를 검증하는 지연-1 일방적 독립성 검증(1-lagged unidirectional test of independence)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행해진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작업동맹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언어 반응 유목 연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kappa값과 작업동맹 측정치(WAI)와의 상관을 구함으로써 행해졌다.

결 과

1. 언어 반응 유목의 기본율(base rate)에 대한 분석

(1) 상담자 및 내담자 반응의 기본율 비교

상담자 및 내담자 반응의 기본율을 비교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특정 유목의 기본율은 각 상담회기에서 모든 유목들의 총 발생 빈도수에 대한 특정 유목의 발생 빈도수의 비율로 상담자와 내담자에 대해 따로 계산되었다. 표 1에 나타난 기본율은 전체 30회기에 걸쳐 각 언어 반응 유목들의 평균 기본율을 구한 것이다.

표 1을 볼 때 상담자는 주로 상대방에게 촛점을 두는(focus on other) 반응을(98.7%), 내담자는 주로 자기에게 촛점을 두는(focus on self) 반응을(99.2%)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가 자기에게 촛점을 두는 반응을 하는 것(1.3%)과 내담자가 상대방에게 촛점을 두는 반응을 하는 경우(0.8%)는 매우 드물다. 이것은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내담자에게 촛점을 맞추는 반면, 내담자는 자신의 얘기를 해가는 상담 상황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 1. 상담자 및 내담자 반응의 기본율 비교

촛점	유 목	상 담 자	내 담 자
	O1:자유롭게하고 잊어버림	.018[1)]	.005
상	O2:긍정해주고 이해해 줌	.581	.003
	O3:가르쳐주고 격려함	.019	-
대	O4:도와주고 보호해 줌	.287	-
	O5:지켜보고 조종함	.075	-
방	O6:경시하고 꾸짖음	.007	-
	O7:공격하고 거부함	-	-
	O8:무시하고 돌봐주지 않음	-	-
	S1:주장하고 독립적임	.003	.073
	S2:털어놓고 표현함	.009	.716
자	S3:가까이하며 즐거워함	-	.002
	S4:신뢰하고 의지함	.001	.172
	S5:양보하며 순종함	.001	.030
기	S6:토라지며 양보함	-	.004
	S7:항의하며 물러남	-	-
	S8:담을 쌓고 피함		

[1)]각 언어반응 유목들의 기본율을 30회기에 걸쳐 평균한 것을 나타냄

이것은 통제를 단순히 지배-순종으로만 보았을 때는 볼 수 없는 결과로서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통제 반응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상담자는 주로 내담자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 반응을 하는 반면, 내담자는 주로 자기에게 촛점을 두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반응을 함으로써 상담 관계를 통제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2)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 유목의 기본율과 작업동맹(WAI)과의 관계

상담자 반응의 기본 발생률과 작업동맹 측정치와의 상관이 표 2에 나와 있는데, 상담자가 한 반응 중 가장 우호적 반응인 O3(가르쳐주고 격려함)의 기본율과 내담자와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상담자가 한 반응 중 가장 적대적 반응인 O6(경시하고 꾸짖음)의 기본율과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의 유대 요인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상담자의 순종하는 행동인 S5(양보하고 순종함) 반응은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의 유대 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표 3에 제시된 내담자 반응의 기본 발생률과 작업동맹 측정치와의 상관을 보면, 내담자의 매우 자율적인 행동인 S1(주장하고 독립적임)은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순응하는 행동인 S4(신뢰하고 의지함)는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의

표 2. 상담자 반응의 기본율과 작업동맹(WAI)과의 상관 (n=30)

유 목	내 담 자				상 담 자			
	목표	과제	유대	합	목표	과제	유대	합
O1	.111	.102	.032	.092	-.191	-.240	-.215	-.259
O2	.135	.112	-.051	.070	.176	.040	.249	.156
O3	.291	.289	.487**	.388*	.254	.312*	.334*	.325*
O4	-.078	-.102	.078	-.038	-.192	-.033	-.292	-.171
O5	-.229	-.111	-.188	-.188	-.052	-.079	-.013	-.057
O6	-.413*	-.454**	-.435**	-.474**	-.121	-.316	-.197	-.236
O7	-	-	-	-	-	-	-	-
O8	-	-	-	-	-	-	-	-
S1	-.029	.086	-.117	-.019	.006	.064	.009	.032
S2	-.076	-.129	.020	-.070	-.045	.170	.065	.072
S3	-	-	-	-	-	-	-	-
S4	.010	.063	.052	.048	.268	.080	.065	.156
S5	.017	.040	.080	.050	.300	.310*	.440**	.370*
S6	-	-	-	-	-	-	-	-
S7	-	-	-	-	-	-	-	-
S8	-	-	-	-	-	-	-	-

* p < .05 ** p < .01

O1:자유롭게 하고 잊어버림 O2:긍정해주고 이해해 줌 O3:가르쳐주고 격려함
O4:도와주고 보호해 줌 O5:지켜보고 조종함 O6:경시하고 꾸짖음
O7:공격하고 거부함 O8:무시하고 돌봐주지 않음 S1:주장하고 독립적임
S2:털어놓고 표현함 S3:가까이하며 즐거워 함 S4:신뢰하고 의지함
S5:양보하며 순종함 S6:토라지며 양보함 S7:항의하며 물러남
S8:담을 쌓고 피함

유대 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Haley(1963)가 주장한 것처럼, 내담자가 통제를 할 경우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통해 왜곡된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증상을 지속시키려 하므로 내담자의 통제 행동은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영해 준다. 그리고 내담자의 자율허용 행동인 O2(긍정해주고 이해해줌)는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의 목표 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상담자와 내담자 반응들의 기본율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상담자의 통제 반응의 기본율은 작업동맹과 관계가 없었으며,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정서적 반응은 작업동맹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내담자의 반응은 주장하고 독립적임(S1)과 같이 자

표 3. 내담자 반응의 기본율과 작업동맹(WAI)과의 상관 (n=30)

유 목	내 담 자				상 담 자			
	목표	과제	유대	합	목표	과제	유대	합
O1	-.151	-.061	-.005	-.076	.124	.109	.061	.112
O2	.037	.042	.129	.072	.314*	.261	.055	.247
O3	-	-	-	-	-	-	-	-
O4	-	-	-	-	-	-	-	-
O5	-	-	-	-	-	-	-	-
O6	-	-	-	-	-	-	-	-
O7	-	-	-	-	-	-	-	-
O8	-	-	-	-	-	-	-	-
S1	-.569***	-.459**	-.544***	-.570***	-.046	-.203	-.305	-.189
S2	-.097	-.180	-.328	-.221	-.166	-.250	-.041	-.181
S3	-.271	-.262	-.170	-.255	.156	.051	.157	.127
S4	.289	.224	.457**	.351*	.056	.230	.038	.129
S5	.098	.154	.181	.161	.134	.062	.168	.126
S6	-.172	-.053	-.049	-.105	-.038	-.261	-.264	-.199
S7	-	-	-	-	-	-	-	-
S8	-	-	-	-	-	-	-	-

* p < .05 ** p < .01 *** p < .001

O1:자유롭게 하고 잊어버림 O2:긍정해주고 이해해 줌 O3:가르쳐주고 격려함
O4:도와주고 보호해 줌 O5:지켜보고 조종함 O6:경시하고 꾸짖음
O7:공격하고 거부함 O8:무시하고 돌봐주지 않음 S1:주장하고 독립적임
S2:털어놓고 표현함 S3:가까이하며 즐거워 함 S4:신뢰하고 의지함
S5:양보하며 순종함 S6:토라지며 양보함 S7:항의하며 물러남
S8:담을 쌓고 피함

율적인 반응과 우호적으로 순응하는 반응(S4)이 작업동맹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의 통제 행동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통제 행동의 단순 발생 빈도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상담자의 통제 행동에 내담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2. 언어반응 유목연계에 대한 분석(sequential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상보적 상호작용, 즉 상담자의 영향을 주려는 행동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에 관심이 있으므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반응 연계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사회행동 구조분석 모형에서 자율 허용(Giving autonomy)-자

표 4. 유목 연계의 kappa 값과 작업동맹(WAI)과의 상관

유목 연계		내 담 자				상 담 자			
(상→내)	평균 kappa값	목표	과제	유대	합	목표	과제	유대	합
O2 - S2	.93 (n=30)[1]	.340*	.203	.357*	.324*	-.031	.187	.103	.096
O4 - S4	.84 (n=30)	-.121	-.168	-.107	-.148	.165	.166	.072	.155
O5 - S5	.88 (n=19)	.087	.159	.153	.147	.364	.475*	.465*	.478*
O5 - S2	.05 (n=18)	-.376	-.139	-.405*	-.327	-.265	-.122	-.283	-.235
O4 - S2	.08 (n=18)	-.409*	-.416*	-.506**	-.481**	-.462**	-.460**	-.443**	-.499**
O4 - S1	-.00 (n=30)	-.251	-.143	-.275	-.232	-.184	-.034	-.094	-.109
O3 - S2	.42 (n=20)	-.103	-.379	-.272	-.268	-.464*	-.403	-.318	-.440

[1]괄호안의 n 수는 분석에 포함된 회기 수임. * $p < .05$ ** $p < .01$
O2: 긍정해주고 이해해 줌 O3: 가르쳐주고 격려함 O4: 도와주고 보호해 줌
O5: 지켜보고 조종함 S1: 주장하고 독립적임 S2: 털어놓고 표현함
S4: 신뢰하고 의지함

율적임(Being separate)과 지배(Dominance)-순종(Submission)의 교류는 상보적인 교류로 정의되는 상호작용 패턴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회행동 구조분석의 모형에서 서로 촛점은 다르나 같은 분원 상에 나타나는 교류 패턴, 예를 들어 O2(선행)- S2(후속)와 같은 것을 말한다.

표 4에는 상담자와 내담자 반응의 주요 연계 패턴의 kappa값과 작업동맹 측정치(WAI)와의 상관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가 각 유목 연계마다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언어 반응 유목의 기본율은 전체 30회기에 걸쳐 계산될 수 있지만, 각 참여자간의 유목 연계 패턴은 어떤 회기에서는 특정 유목 연계 패턴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유목 연계의 발생 빈도가 최소한 2번이상 관찰되는 회기가 10회기가 넘는 경우에 대해서만 kappa 값과 WAI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결과를 보면 상보적인 상호작용인 O2-S2, O5-S5는 작업동맹 측정치와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비상보적인 상호작용인 O5-S2, O4-S2 연계 패턴은 작업동맹 측정치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상담자의 통제 행동에 내담자가 상보적인 수용 반응을 하는지 또는 비상보적인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 작업동맹 형성에 다른 영향을 주게 됨을 시사한다.

O3-S2 연계 패턴의 경우는 예상과 달리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의 목표 요인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O3-S2가 친애 차원에서는 우호적 상호작용이지만 통제 차원에서 보면 상담자가 칭찬이나 격려를 하는 행동에 대해 내담자가 이것을 긍정하지 않고 자신의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 경우이므로 상보성

표 6. 통제 차원에서 묶은 유목들의 연계 패턴 kappa값과 작업동맹과의 상관

유목 연계		내 담 자				상 담 자			
일방향	평균 kappa값	목표	과제	유대	합	목표	과제	유대	합
상HG - 내HS	.976(n=30)[1]	.391*	.327*	.331*	.383*	-.068	-.069	.022	-.049
상HG - 내HC	-.746(n= 8)	-.260	-.022	-.226	-.192	.046	.131	-.098	.044
상HD - 내HS	.096(n=16)	-.450*	-.572**	-.311	-.510*	-.064	.122	.206	-.029
상HD - 내HC	.956(n=13)	-.216	-.128	-.106	-.165	.179	.155	.146	.176

[1]괄호안의 n 수는 분석에 포함된 회기수임 * $p < .05$ ** $p < .01$

HD(High Dominance:높은 지배 반응) = O4 + O5 + O6
HG(High Giving Autonomy:높은 자율허용 반응) = O1 + O2+ O8
HS(High Being Separate:높은 자율적임 반응) = S1 + S2 + S8
HC(High Compliance:높은 순종 반응) = S4 + S5 + S6

O1:자유롭게 하고 잊어버림 O2:긍정해주고 이해해 줌 O4:도와주고 보호해 줌
O5:지켜보고 조종함 O6:경시하고 꾸짖음 O8:무시하고 돌봐주지 않음
S1:주장하고 독립적임 S2:털어놓고 표현함 S4:신뢰하고 의지함
S5:양보하며 순종함 S6:토라지며 양보함 S8:담을 쌓고 피함

이 낮은 상호작용으로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결과를 좀더 포괄적인 수준에서 보기 위해 상담자의 통제 행동을 크게 자율허용(O1, O2, O8)과 지배(O4, O5, O6)의 유목으로 묶고 내담자의 반응을 크게 자율적임(S1, S2, S8)과 순종(S4, S5, S6)의 유목으로 묶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반응 연계의 Kappa값과 WAI와의 상관을 본 것이 표 5에 나와 있는데 이 유목 묶음에는 중립적인 통제 행동인 O3, O7, S3, S7과 같은 유목은 제외되었다. 상보적인 상호작용인 상담자의 지배 행동에 내담자가 순종하는 연계 패턴(HD-HC)은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상담자의 지배 행동에 내담자가 자율적인 반응을 하는 비상보적인 상호작용은(HD-HS)은 작업동맹 측정치와 부적인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 반응을 우호적 및 적대적 반응 유목으로 묶어서 연계 패턴의 kappa값과 WAI와의 관계를 본 것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O1, O5, S1, S5와 같은 중립적인 반응은 이와 같은 유목 묶음에서 제외되었다. 여기서 우호적 측면에서의 상보적 상호작용(FI-FC)이 내담자가 평정한 WAI 점수들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좋은 상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우호적이고 온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적대적 측면에서의 상보적 상호작용(HI-HC)은 발생 빈도수가 너무 적어서 작업동맹 측정치들과의 상관을 볼 수 없었다.

언어 반응 유목 연계 패턴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통제 차원에서의 상보적 상호작용과 우호적 차원에서의 상보적 상호작용은 작업동맹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통제 차원에서의 비상보적인 상호작용은 작업동맹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표 6. 친애 차원에서 묶은 유목들의 연계 패턴 kappa값과 작업동맹과의 상관

유목 연계		내 담 자				상 담 자			
일방향	평균 kappa값	목표	과제	유대	합	목표	과제	유대	합
상FI - 내FC	.916(n=30)[1]	.515**	.429**	.486**	.519**	.163	.290	.282	.265
상FI - 내HC	-.720(n= 8)	-.511	-.036	.136	-.228	.107	.073	-.093	.032
상HI - 내FC	-.087(n=12)	-.321	-.454	-.507	-.493	-.216	-.226	-.053	-.202
상HI - 내HC	1.000(n= 6)	-	-	-	-	-	-	-	-

[1]괄호안의 n 수는 분석에 포함된 회기수임 * p < .05 ** p < .01

FI(Friendly Influence:우호적 영향 반응) = O2 + O3 + O4

HI(Hostile Influence:적대적 영향 반응) = O6 + O7+ O8

FC(Friendly Compliance:우호적 순응 반응) = S2 + S3 + S4

HC(Hostile Compliance:적대적 순응 반응) = S6 + S7 + S8

O2:긍정해주고 이해해 줌 O3:가르쳐주고 격려함 O4:도와주고 보호해 줌

O6:경시하고 꾸짖음 O7:공격하고 거부함 O8:무시하고 돌봐주지 않음

S2:털어놓고 표현함 S3:가까이하며 즐거워 함 S4:신뢰하고 의지함

S6:토라지며 양보함 S7:항의하며 물러남 S8:담을 쌓고 피함

리고 적대적 측면에서의 상보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써 어떤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기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Benjamin(1981)의 사회행동 구조분석(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모형에 따라 분석하여 작업동맹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상담자와 내담자 각 반응들의 기본율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와 내담자 반응을 비교해 보면 상담자 반응의 대부분(98.7%)이 상대방에게 촛점을 두는 반응이고, 내담자 반응의 대부분(99.2%)은 자기에게 촛점을 두는 반응이었다. 이것은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내담자에게 촛점을 맞추고 내담자는 자신의 얘기를 해나가는 상담 상황을 보여줌과 동시에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통제 반응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통제를 하는 반면, 내담자는 그러한 행동을 거부하거나 주장하고 독립적인 반응을 함으로써 상담관계를 통제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상담자 반응의 기본율과 작업동맹과의 관계를 보면 매우 우호적인 반응인 O3(가르쳐주고 격려함)와 적대적인 반응인 O6(경시하고 꾸짖음)의 기본율과 작업동맹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정서적인 색채가 강한 상담자의 반응은 발생률 자체는 빈번하지 않더라도 작업동맹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상담자의 우호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인 S5(양보하고 순종함) 반응은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의 유대 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상담자의 통제 반응의 기본율은 작업동맹과 아무런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세째, 내담자 반응의 기본율의 경우에는 매우 자율적인 행동인 S1(주장하고 독립적임)은 작업동맹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순응하는 행동인 S4(신뢰하고 의지함)는 작업동맹과 정적인 상관을 보임으로써 내담자가 통제를 할 경우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Haley (1963)의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나 상담자의 통제 행동은 작업동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Haley(1963)의 주장이 단지 부분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상보적 상호작용과 작업동맹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계 분석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의 통제 행동의 단순 발생 빈도만으로는 작업동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그것이 내담자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에 따라 작업동맹 형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즉 상담자의 통제 행동에 상보적인 반응(O2-S2, O5-S5)은 작업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비상보적인 상호작용(O4-S2)은 작업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것을 상담자의 통제 반응을 크게 자율허용과 순종의 유목으로 묶어 분석한 결과와 함께 종합해볼 때, 통제 차원에서의 상보적 상호작용은 상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상보적인 상호작용은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우호적 측면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는, 우호적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은 작업동맹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적대적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것은 적대적 상호작용의 발생 빈도 자체가 매우 적어서 상관 관계를 볼 수 있는 사례수로는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우호적 측면에서의 상보적 상호작용은 작업동맹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대적 측면에서의 상보적 상호작용과 작업동맹 형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하지만 상담자의 적대적 반응(O6)의 기본율과 작업동맹과의 관계가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볼 때 상담 초기에 상담자의 적대적 반응은 매우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행동 구조분석을 사용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상담자와 내담자의 통제 행동이 다른 양상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통제 행동을 행하는 데 반해 내담자는 그러한 상담자의 통제 행동을 거부하거나 주장하고 독립적인 반응을 함으로써 상담관계를 통제한다.

둘째, 각 언어 반응의 기본율을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계분석을 함으로써 상담초기에 관계 형성을 하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상담자의 동일한 반응이라도 그것이 내담자의 어떤 반응과 연계되는지에 따라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 초기에 작업동맹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째, Haley(1963) 이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상보성의 문제를 통제 차원 뿐만 아니라 친애 차원에서도 분석하고, 또 통제를 단순히 지배-순종으로만 보지 않고 행위의 촛점에 따라 통제의 의미를 다르게 봄으로써 상담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정교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통제 차원에서의 상보적 상호작용(자

율허용-자율적임, 지배-순종)과 우호적 측면에서의 상보적 상호작용(우호적-우호적)은 작업동맹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상담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상담 초기에는 내담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허용하면서 우호적인 방식으로 통제가 적절히 행사될 때 강력한 작업동맹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담 초기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상담의 전 과정에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성공적인 상담의 경우 초기, 중기, 말기의 상담 단계에 따라 상보성의 수준이 고, 저, 고의 양상을 보인다는 Tracey와 Ray(1984)의 연구 결과로 볼 때 중기와 말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의 최종 성과와도 관련지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행동 구조분석을 사용하여 부호화하는데 있어서 상담 축어록을 훈련된 평정자들이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정자들간 일치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우호/적대 등과 같은 감정적 교류를 추측하여 부호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축어록만으로는 말하는 사람의 어조, 말투, 억양, 표정 등을 알 수가 없으므로 글로 표현된 문장과 맥락을 보고 짐작할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녹음 테잎이나 비디오 테잎을 축어록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세째, 사례 수집에 있어서 상담자들의 경력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Mallinckrodt와 Nelson (1991)의 연구에 의하면, 상담자의 훈련 수준에 따라 유대 차원은 별 차이가 없지만 목표와 과제 차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그러므로 비슷한 경력을 지닌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사례를 수집했을 때 보다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상담자 훈련에 어떤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영향을 주려는 행동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에 관심을 갖고 상→내의 일방향적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통제 차원과 우호적 측면에서의 상보적 상호작용은 작업동맹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나타났다. 하지만 내담자의 반응을 맥락 변인으로 한 상담자의 개입 반응을 살펴본다면 내담자 반응에 적절한 상담자 개입 등에 대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제한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들은 상담의 전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담 상호작용의 변화 과정을 연구하고 상담의 최종 성과와도 관련시켜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선경 (1992). 상담자-내담자 초기 협조관계의 지각과 언어상호작용 유형과의 관계분석.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금명자 (1994). 상담단계와 내담자 체험수준에 따른 상담자 개입패턴의 즉시적 성과.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방기연 (1991). 상담 초기 작업동맹과 상담자 반응 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오경희 (1986). 초기 상담에서 상담자의 반응의도 전달이 내담자의 의도지각 및 상담의 효율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정문경 (1993). 통제차원을 중심으로 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 유형과 상담성과와

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조성호 (1992). 초기상담에서 대인권력과 대인관에에서의 상호작용 패턴과 상담 효율성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Anchin, J. C., & Kiesler, D. J. (1982). *Handbook of Interpersonal Psychotherapy*. New York: Pergamon.

Benjamin, L. S. (1974).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81*, 392-425.

Benjamin, L. S. (1979). Structural analysis of differentiation failure. *Psychiatry, 42*, 1-23.

Bordin, E. S. (1979).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the working alliance. *Psychotherapy, 16*, 252-260.

Carson, R. C. (1969). *Interaction Concepts of Personality*. Chicago: Aldine.

Gelso, C. J., & Carter, J. A. (1985). The relationship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3*, 155-244.

Gilbert, L. A. (1980). Feminist Therapy. In A. M. Brodsky and R. T. Hare-Mustin(Eds.), *Women and Psychotherapy* (pp. 245-266). New York:Guilford Press.

Gomes-Schwartz, B. (1978). Effective ingredients in psychotherapy: Prediction of outcome from process variab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023-1035.

Haley, J. (1963). *Strategies of psychotherapy*. New York:Crune & Stratton.

Hartley, D. E., & Strupp, H. H. (1983). The therapeutic alliance: Its relationship to outcome in brief psychotherapy. In J. Masling(Ed.), *Empirical studies of psychoanalytic theories* (Vol.1, pp. 1-37).

Heller, K., Myers, R., & Kline, L. (1963). Interviewer behavior as a function of standardized client ro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117-122.

Henry, W. P., Schacht, T. E., & Strupp, H. H. (1986).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bior: Application to a study of interpersonal process in differential psychotherapeutic outcom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27-31.

Horvath, A. O., & Greenberg, L. S. (1986). The development of the Working lliance Inventory. In L. S. Greenberg, & W. M. Pinsof (Eds.), *The psychotherapeutic process: A research Handbook* (pp. 529-556). New York: Guilford Press.

Horvath, A. O., & Greenberg, L. S.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23-232.

Horvath, A. O., & Luborsky, L. (1992). The role of the therapeutic alliance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561-573.

Kiesler, D. J. (1982). Interpersonal theory for personality and psychotherapy. In J. C. Anchin & Kiesler(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Psychotherapy*. New York: Pergamon.

Kiesler, D. J. (1983). The 1982 interpersonal circle: A taxonomy for complementarity in human transactions. *Psychological Review*,

90, 185-214.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Ronald.

Lichtenberg, J. W., & Heck, E. J. (1986). Analysis of sequence and pattern in process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615-618.

Lichtenberg, J. W., & Barke, K. H. (1981). Investigation of transactional communicaion relationship patter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471-480.

Luborsky, L., Crits-Christoph, P., Alexander, L., Margolis, M., & Cohen, M. (1983). Two helping alliance methods for predicting outcomes of psychotherap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orders, 171*, 480-491.

Lorr, M., & McNair, D. M. (1965). Expansions of the interpersonal behavior circ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823-830.

Mallinckrodt, B., & Nelson, M. L. (1991). Counselor training level and the formation of the psychotherapeutic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33-138.

Penman, R. (1980). *Communication Processes and Relationship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Reandeau, S. R., & Wampold, B. E. (1991). Relation of power and involvement to working alliance: A multiple-case sequential analysis of brief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07-114.

Ro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Cambridge, MA: Riverside Press.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2*, 95-103.

Rogers, C. R., & Skinner, B. F. (1966). Some issues concerning the control of human behavior: A symposium. *Science, 124*, 1057-1068.

Rogers, L. E., & Farace, R. V. (1975). Analysis of relational communication in dyad: new measurement procedures, in Mores, P. W., & Phelps, L. A. (Ed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Minneapolis, MN: Burgess.

Raush, H. L., Dittman, A. T., & Taylor, T. J. (1959). The interpersonal behavior of children in residential treatmen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8*, 9-26.

Strong, S. R., & Claiborn, C. D. (1982). Change through interaction: *Social psychological process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Strupp, H. H., & Hadley, S. W. (1989). Specific versus nonspecific factors in psychotherapy: A controlled study of outcome. *Archives of General Psychitry, 36*, 1125-1236.

Tracey, T. J., & Miars, R. D. (1986). Interpersonal control in psychotherapy: A comparison of two defini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 582-592.

Tracey, T. J., & Kokotovic, A. M. (1989). Factor structure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 207-210.

Tracey, T. J., & Ray, P. B. (1984). Stages of Successful time-limited counseling: An interactional examin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3-27.

Watzlawick, P., Beavin, J. H., & Jackson, D. D. (1967). *Pragmatics of human communication: a study of interactional patterns, pathologies, and paradoxes.* New York: Norton.

Watzlawick, P., & Weakland, J. (1977). *The Interactional View.* New York: Norton.

Wiggins, J. R. (1979). A psychological taxonomy of trait-descriptive terms: The interpersonal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95-412.

Relationship of Counselor-Client Complementarity and Working Alliance in Early Counseling Interviews

Ji-Eun Kim Chang-Ho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counselor-client verbal exchange patterns focused on complementarity. To perform this study, 30 sessions(the first three sessions per case) of 10 practical counseling cases were analysed. Message units were coded using SASB(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Benjamin, 1974).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relation between the base rates and working alliance, although the power dimension was not related to working alliance, the base rates of counselors' friendly response and hostile respons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working alliance. Clients' response of 'asserting and separating'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working alliance and clients' response of 'trusting and rely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working alliance. This result implies that client's directive control has a negative effect on counseling.

In the results of sequential analysis, complememtry interaction on comtrol dimens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working alliance but non-complementary interaction on control dimen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working alliance. Complementary interaction on affiliation dimension(friendly-friendly) was positively related to working alliance. Therefore, even though counselor has the controllability of the counselling process, he can make the strong working alliance when he gives some autonomy to client and controls counselling process in friendly manner.